

경북도의회, 민생정치 본격 시동

후반기 첫 연석 확대회의 개최...의정활동강화 방안 논의

경북도의회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1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방향과 비회기 기간동안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 역점사항을 공동논의하는 연석 확대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확대회의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후반

기 의정활동이 실현가능한 역동적인 대안중심의 의회로 펼쳐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비회기 기간동안의 상임위 현지확인 활동의 폭넓은 현장여론 수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확인점검,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강화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또 공격적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로 청년실업해소, FTA에 대한 피해 구제 내실화와 농민정책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현장의 여론 등을 적극 수렴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의회 민생 행보

경북도의회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의회는 1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방향과 비회기 기간에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 역점사항을 공동논의하는 등 연석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확대회의는 지난 5일 제 256회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원 구성 이후 2주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이 실현가능한 역동적인 대안 중심의 의회로 펼쳐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각 상임위의 주요 현안 과제를 검토

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석확대회의는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진작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여론 등을 적극 수렴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경북도의회가 17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 비회기 중 활동 사항을 점검했다.

“서민 얼굴에 웃음꽃 피우자”

경북도의회, 연석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경북도의회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의회는 1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 하반기 의정활동의 주요방향과 비회기 기간동안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 역점사항을 공동 논의했다.

이날 연석확대회의는 지난 5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원구성 이후 2주일 만에 개최된 것.

연석확대회의는 하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또한 각 상임위의 주요 현안과제를 검토하는 등 도의회차원의 심도있는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비회기 기간동안의 상임위 현지확인 활동에 있어서 폭넓은 현장여론 수렴, 도차원의 주요역점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타당성 확인점검,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확인점검, 그리고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강화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와함께 공격적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해소, FTA에 대한 피해구제 내실화와 농민정책강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의원연수회 등에서 다시한번 논의하고 실천키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